

김태룡

- 1949년 강원 삼척에서 태어났습니다.
- 근덕농업고등학교 다니던 1969년, 625때 월북한 외가쪽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다리 다친 그를 집안 어른들은 물리치지 못했고, 나올 때까지 숨겨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서울로 도망치듯 이사를 하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건설회사에 취직, 1978년 결혼도 했고, 아들 형식이기도 태어났습니다.
- 두렵고 불안한 마음도 가시기 시작한 1979년 6월,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남자들에게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 곳은 남영동 대공분실!

40일...

아버지 어머니 누님 남동생 숙부 당숙 오촌형
제들의 비명소리, 울부짖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 고문...

고문으로 일가족 모두가 '간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당숙 사형, 나와 작은 당숙 무기징역,
어머니 5년, 누나와 남동생 7년 ...

아버지 김상희.

1983년 사형집행 당하셨습니다. 뜨거운 여름, 시신
거둘 가족 한 사람 없는 억울한 죽음...

아버지는 장례식도 없이 비닐에 둘둘 말린 채 공동
묘지로 옮겨져 묻히셨습니다.

아들 형식이...

90일만에 아버지를 빼앗긴 형식은 고아 아닌 고
아로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자랐습니다.

한번도 못 본 아들이 20년 감옥살이 내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1998년 8월, 20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내가 살던 서울이라는 곳이 바늘 끝 만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나 홀로 허공에 떨어진

무능력자가 된 것 같아

누구하고도 마음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었는지,
고문치유모임 2기, 5기에 참가하면서
진실의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

일생을 살면서
여기 와서 비로소
가슴속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사람 고통이 내 고통이고,
우정이랄까,
뜨거운 마음을 나눴습니다.

- 고문치유모임 2기



고문은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이에요.

불교에 8고라는 말이 있어요.
생(生), 노(老), 병(病), 사(死),
그리고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그 말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겪은 ‘고문’이
없었을 겁니다.

- 고문치유모임 5기



진실의힘 치유학교



내가 힘들었을 때
나에게 와 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은 용기의 원천이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사는 이 인생은 덤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나는
고문,
죽음
고문생

이제 나
상처에
여전히
피해자

‘상처



이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만났을 때,
“나도 살아 있으니, 기운 내서 함께 살자”
손을 잡았습니다.

그 분들은 나를 보면서
삶의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나도 그 분들에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 라는 사람도
이렇게 존재해주면 좋겠구나...





2011.10.30. <심리치유센터 와락> 개소식



2012.5.3. <쌍용차노동자 대한문분향소>



불의
절벽₂





불의 절벽!
그 무대 주인공으로 서서
넘치는 격려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내 삶도
박수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19년 2개월, 감옥살이 마치고
세상에 돌아왔지만, 마음 둘 곳 없었습니다.

다행히 '진실의힘' 동지들을 만나 삶의 용기를 얻고
비틀거리면서도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암이 발병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허나 죽음 같은 세월 다 견뎌온 내가,
그 모진세월 속에서도 살아온 내가,

이거 못 버틸까, 이 악물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태룡